

정부지원 훈련 활용, 외국인력 직무능력 키운다

기고



한승현
송운산업 대표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와 쇠를 이어 붙이고, 쇠가 녹슬지 않게 색을 칠하는 현장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고 밀폐된 탱크 속 용접 불꽃과 싸우는 전장터이자 일터가 조선소 현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 전체 인력의 16%인 1만5500명이 외국인이다. 우리 기업이 있는 영암군은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18.4%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조선업 및 관련 업체에서 일한다.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저렴한 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국인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과 '공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가 조선업 유지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맞는 현장 인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생산기량을 따지기도

전에 안전확보가 되지 않아 결국 기업 생존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시급한 인력난은 해소됐지만 외국인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은 안전과 생산성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현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력공단의 HR닥터(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특화 기업 훈련패키지에 참여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조선현장에서 쓰는 현장용어를 익히고, 이를 활용한 내국인 소장이나 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을 역할극으로 실행해 보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교육에 임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태도를 보고 사뭇 놀랐다.

역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어눌한 한국어로 질문하고 용어를 익히는 정도가 아닌 현장설치 도면독해까지 도전하고 싶다고 하는 정도였으니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하는 현장책임자들의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그렇게 4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공단에서 열린 '빛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이란 훈련사진공모전에 참여한 우리 기업 근로자 중에서 입상자가 나왔다.

입상자는 우리 기업에서 3~4개월 남짓 근무한 내팔 근로자였다. 그는 작품

을 제출하며 "현장에서 일하다 궁금한 게 있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작품 제출 이유를 적어둔 것이다.

다른 근로자는 "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것을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고, 반장님이 왜 답답한지. 나도 왜 답답한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하며 훈련 사진을 제출했다.

그간 현장에서 소통되지 않아 답답하고 좀처럼 향상되지 않던 현장문제의 열쇠가 바로 교육에 있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이 조선업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갖춰 숙련도를 높이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와 환경을 일시에 갖추기엔 조선소내 협력기업은 원청 생산공기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정작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훈련에 미루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거창한 교육투자를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어느 곳에서나 인력공단 HR닥터를 찾으면 된다. 현장에 맞는 내 기업에 걸맞은 훈련은 기업 성장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 같은 중소 협력기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의 시작이 중요한 까닭이다.

社說

광주공항 무안 이전 더 이상 허송 안된다

이달 '3자 회동' 성과 만들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놓고 동시에 목소리를 냈다. 주제나 방향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과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광주지역 경제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을 촉구했다.

광주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은 지역 사회와 전체적인 국가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이다. 당장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에 국제항공노선이 늘어나 광주와 전남의 관광 인프라와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주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이 이날 성명에서 "무안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이라고 했다.

광주·전남 매가시터 구상의 첫 출발

은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광주연구원이 얼마 전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민간공항을 모두 옮기면 2033년 520만 명, 2044년에는 1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올 상반기 무안공항 이용객이 2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잠재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꿈도 '광주 민간·군공항을 통합 이전해 무안공항을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는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무안을 수도권 관문 도시인 인천 같은 공항 경제도시로 키우는 것'이다.

이번 달 안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다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회동'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는 10년을 허송세월한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을 위한 '통 큰 보따리'를 내놔야 한다. '소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김영록 지사의 충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무안군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다시 추진하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감안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남국제직업고 지역소멸 극복 대안되길

다문화 시대 패러다임 바꾸자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가칭) 설립이 추진되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정책 포럼'을 열고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연구 용역 추진 경과보고회를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은 강진에 있는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사전 기획을 마무리했으며, 향후 증축 등 시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해외 유학생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학생들로, 2026년 3월 기계·전기전자·보건간호과 등 3개 학과 6학년 90명 규모로 개교한 뒤 2028년까지 총 18학급 27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및 복지인력 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남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은 11.2%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체 부족인원 중 고졸 부족인원도 44.9%로 높다. 하지만 국내에 반 이민 정서와 문화·언어장벽 등으로 이민자들이 장기체류와 정착을 하지 못한 채 번번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현재 유럽 등에서는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 극우 정당들의 핵심 의제가 바로 '반 이민'이다. 우리나라도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유치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 역시 저출생의 해법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

전남국제직업고 설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꾀하겠다는 전략은 반길 일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산업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성공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이주민과 내국인간 서로 도움을 주며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상리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상생과 공존은 인구소멸을 벗는 유일한 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 설치된 2024 파리 올림픽 울림 뒤로 보름달이 뜨고 있다. 파리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8월11일까지 열리며 206개국 1만5000여명이 32개 종목에 출전한다.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26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AP/뉴시스

서석대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70~80년대 저항가로 상징되는 노래 '아침이슬'. 극단 '학전' 고(故) 김민기가 서울대 회화과 학생시절 서울 우이동 반지하에서 그림 그리던 밤, 만든 노래다.

원래 '아침이슬'이라는 곡을 구상 당시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시련일지라'라는 가사에서 멈춰 있다가 가사의 '그'를 '나'로 바꾼 뒤 가사가 잘 써지자 시작했다고 한다. 훨씬 더 감정의 입이 잘 되고, 당시의 시대상을 마주한 '나'의 기본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민기는 1970년 '아침이슬'을 세상에 선보였다. '아침이슬'은 양희은의 노래로 익숙하지만 실제 김민기는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창법으로 불렀다. '아침이슬'을 비롯해 발표한 노래들은 민중가요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군사정권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아침이슬'이 암울한 군부시절 저항의 상징이 될수록 고인의 삶은 고단했다. 아침이슬 등이 수록된 솔로 1집 '김민기'가 판매 금지됐다. 전역 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비밀리에 음악 활동을 계속했지만 군사정권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솔하게 체포되고 취조를 받았다.

고인의 모진 삶 속에 '아침이슬'은 버팀목이었다. 그는

87년 6월을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했다. 6월 항쟁 당시 신촌 로터리부터 시청 앞까지 늘어난 100만 명의 군중이 동시에 '아침이슬'을 합창하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당시 현장에 고인도 있었다. 고인의 목소리로 아침이슬을 다시 듣게 된 건 1990년 '겨레의 노래'를 제작한 뒤 이를 기념해 가진 전국 순회공연을 하면서다. 무려 20년 만에 '아침이슬'을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불렀다.

노래 '아침이슬'을 만든 김민기는 병세 악화로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누구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고, 대학로 소극장 학전에서 후배들을 길러냈다. 스스로를 뒤에 있는 사람, '뒷자'라고 낮춰 표현했다. 고인이 남긴 노래는 처음엔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 축하로, 군부독재시절에는 저항가로, 외환위기때는 위로곡이 되었다.

고인은 한 인터뷰에서 '아침이슬을 빼놓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늙은이다. 그걸로 족하다"고 했다. 대중들은 그를 떠나 보내지만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